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 17만명 다녀가

“철쭉피는 5월까지 최소 50만명 예상”

강진군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군동면 남미륵사 일원에서 열린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가 전년 대비 104% 늘어난 17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렸다고 15일 밝혔다.

축제 마지막날인 14일 남미륵사 앞에는 가장 전인 오전 7시30분부터 대가줄이 길게 이어지는 등 서부해당화와 만개한 철쭉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며 축제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강진군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방문객 대부분이 수도권과 충청, 영남권 등에서 몰려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철쭉이 활짝 피는 5월 초중반까지 최소 50만명 안팎의 관광객이 강진의 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축제장에 마련된 강진군 초록민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입점한 8개 업체 모두 전시 판매된 제품을 완판

하는 기쁨을 토했다.

작두콩차를 판매한 ㈜도두맘 홍여신씨는 “봄꽃이 만개한 것처럼 준비한 제품을 모두 판매했다”며 “매출액은 영업비밀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축제장 인근 마을주민들로 이뤄진 ‘어머니 장터’ 역시 준비한 양상추와 잡곡류, 견과류 등이 완판되며 평소 누려보지 못한 ‘참여의 기쁨’을 누렸다.

남미륵사 인근 마을 부녀회가 마련한 주말촌은 4700여만원 가까이 매출을 올려 회원들의 바쁜 손놀림에 대해 완벽하게 보답했다.

축제장 인근에 마련된 강진군 플라마켓인 ‘강진만 노을장’에도 관광객들이 모여들어 일부 완판하는 실적을 보였다. 강진의 수공예품과 소품 등의 인지도를 한껏 끌어 올렸다.

강진=한홍수 기자

신안군 ‘2026 세계섬학술대회’ 유치 성공

오는 6월 중 인도네시아 톰복서 홍보 계획

박우량 군수 “한국의 섬 세계 알리는데 노력”

신안군은 오는 2026년 제20회 세계섬학술대회 개최 유치가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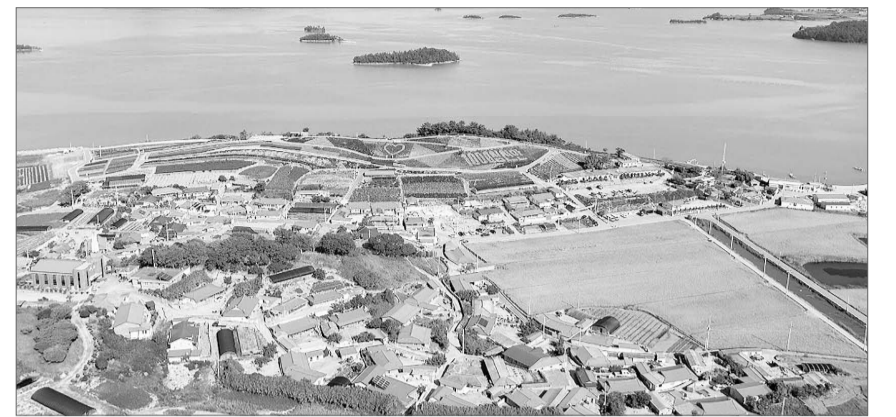
세계섬학술대회는 세계 섬 연구기구연합인 ISISA(International Small Islands Studies Association)가 2년마다 해의 주요 섬 지역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섬 전문학술회의로서 50여 개국에서 2,000여 명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신안군은 전라남도,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과 함께 작년 11월에 유치 제안서를 ISISA 본부에 제출했

으며, 일본, 카리브 등 4개 국가와 체결한 유치 경쟁 끝에 2026년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

오는 2026년 신안군에서 열리는 제20회 세계섬학술대회는 ‘기후 위기, 섬의 회복력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1주일간 신안군 자은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6 세계섬학술대회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인 생물다양성이 높은 신안군이 세계 섬 발전을 견인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섬을 세



계에 알리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유치 성공 소감을 밝혔다.

제1회 세계섬학술대회는 1986년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시작했다. 신안군과 전라남도, 국립목포대학교 도서

문화연구원을 주축으로 한 한국대표단은 6월 25~29일 인도네시아 톰복서에서 개최하는 제19회 대회에 참석, 본격적인 2026 세계섬학술대회 홍보를 시작할 계획이다.

신안=강축복 기자

목포, 반부패·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

‘청렴도 최상급 도약’ 3대 전략·36개 실행과제 마련



목포시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청렴 목포’를 실현하고 청렴도 우수기관 재도약을 위해 ‘2024년도 반부패·청렴시책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고, 자체 내부 설문조사, 청렴도 우수기관 벤치마킹 결과를 분석해 부패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두어 실효성 있는 청렴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반부패·청렴추진기반 조성 ▲외부청렴도 향상 및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 ▲내부청렴도 향상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 등 3대 전략, 36개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정책으로 시는 ‘청렴 정책 추진단’을 운영한다. 이는 반부패·청렴추진 기반 조성 과 고위직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청렴활동 추진 동

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청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청렴정책추진단은 목포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청렴도 관련 부서 구성원이 청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고위직이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 조성에 나가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시는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청렴 활동 리더인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는 한편 지역 청렴문화 실천 캠페인 전개 등 반부패 청렴정책을 민·관이 공동해 추진한다.

업무처리 중 불편사항 및 부패행위 등을 파악하는 민원 만족도 조사 ‘청렴 알람톡’을 실시하고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무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본격 착공

블록시스템 구축·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 물복지 실현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국내 물관리 전문가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협약 체결을 통해 ‘무안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일환인 블록시스템 구축,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지자체의 노후 상수도를 정비해 안정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뭄 대응 등 물 복지 실현을 위해 환경부와 무안군 예산을 투입,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급수구역을 하나의 블록으로 분할하는 블록구축공사, 노후 된 상수관을 교체하는 관망정비공사, 무안군 전체 상수도 시설의 실시간 감시 및 운영을 통해 선제적 물관리 실현을 위한 통합관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시행중에 있다.

이번 공사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무안을 지역의 노후 상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무안현대화사업소장은 “상수도 공사는 교통이 혼잡

한 주거지 및 상업시설 주변에서 이루어지며, 공사에 따른 교통통제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사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상수도 공사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면 무안군은 상수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상수도 관로 교체에 따라 무안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공급은 물론 누수 예방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상수도 재정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안=김상문 기자

완도 전복·해조류, 전국 최대 박람회서 ‘큰 인기’

수원 메가쇼에 지역 7개 업체 참가 수산물 우수성 알려

순살 전복 편리함·전복 요리 소개... 방문객 행렬 이어져

완도군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 메가쇼 2024 시즌1’의 전라남도 수산물 판촉 행사에 참가해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다.

‘수원 메가쇼’는 국내 최대 소비재 박람회로 올해는 지역 농수특산물, 패션, 뷰티 등 250개 사가 참가했으며, 1만 명의 바이어, 5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완도군에서는 관내 7개 업체가 참

여했으며, (사)한국전북산업연합회·남도전북연합회에서 활 전복을, 이문삼육옥(주)는 김 가공품을, 천지가전복(주)는 순살 전복을, 달스윗(주)는 전복 빵을, 완도다어업사법인은 전복 차우더를, ㈜바다명가는 미역·다시마, 완도고급바다어는 건 매생이 등을 선보였다.

특히 완도군과 (사)한국전북산업연합회에서는 ‘순살 전복 시식 코너’를 운영하여 전복 순살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순살 전복을 홍보하고, 다양한 전복 요리를 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2일 행사장을 찾은 김현철 완도부군수는 “이번 행사가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물론 판로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어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소비 트렌드에 맞는 전복과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수산 가공품을 개발하고, 판촉 활동에 힘쓰고 있다. /완도=이두식 기자

진도, 현업근로자 대상 파상풍 무료 예방접종

진도군이 지난 1일부터 2주간 군 소속 현업근로자 230명을 대상으로 무료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업무 특성상 파상풍 발생 위험이 높은 환경미화원, 산림종사자, 농기계수리원 등 현업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도군보건소에서 접종을 진행했다.

파상풍은 파상풍균이 생산한 신경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주로 흙이나 동물의 분변에 있던 균이 상처 부위를 통해 감염될 수 있고 화상이나 못 찔림, 동물에 의한 물림 사고 등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될 경우 신경기관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근육경련, 호흡곤란 등을 유발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상처가 났을 때는 즉시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적절한 치료로 감염을 예방해야 하며, 효과적인 면역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10년마다 예방접종을 하면 좋다.

진도군 안전생활지원과 관계자는 “군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2024 Cheongsando Slow Walking Festival

氣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보

2024. 4. 6.(토) ~ 21.(일)
완도군 청산면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

2024 완도 갯벌고 수산물 축제

2024. 5. 3.(금) ~ 5. 6.(월) | 4일간 |
완도해변공원 일원

잡고, 먹고,
치유하는
청정바다
힐링 페스티벌

주최 | 완도군 주관 | 갯벌고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